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歐洲戰局과 伊太利

一

今日 白耳義軍의 降服에 依하여 더욱 有利한 地位를 獲得하게 된 獨軍은 단케르크, 오스텐드間 五十키로의 海岸과 릴市를 連繫하는 三角形地域으로 英佛聯合軍 五十餘萬을 包圍殲滅하여 그 覆滅을 期하고잇다고 傳한다. 果然 이 包圍作戰이 獨軍의 意圖대로 進捗되여 五十萬의 聯合軍은 全滅 又는 降服할것인가 또는 英佛軍의 脫出作戰이 成功하여 期待되던바와가튼 一大決戰이 展開되지안코 聯合軍은 總退却하고말것인가 北佛戰線의 攻防戰은 바야흐로 世人의 重大關心을 끌고잇는것이 事實이거니와 [illegible] 戰局은 아모리 보아도 獨軍側에 有利하게 展開되는것이 確實한 模樣으로 英佛聯合軍의 退却戰이 如意히 된다하드라도 北佛一帶는 全然 獨軍에게 席卷되고 말것이 漸次 明確하게 되엇다. 따라서 世人의 關心은 [illegible] 그다음에 獨軍이 取할 新作戰과 및 伊太利의 參戰與否問題로 總集中되고 잇다고 할것이다.

二

獨軍은 北佛一帶를 完全히 占領한後 側面으로 巴里를 威脅하며 一擧에 英本土上陸作戰을 敢行하리라는等 伊太利의 參戰을 [illegible] 하여 獨伊兩軍이 南北으로 呼應하여 佛軍主力을 殲滅하는 一方 伊軍은 코르지카, 튜니쓰, 스에즈運河等을 占領하여 多年來의 宿望인 地中海의 制霸를 圖하리라는等 佛蘭西와 單獨和를 求하는等 여러가지 推測이 區區하다. 이 推測中에 獨軍이 어떠한 作戰을 取하던지간에 戰局이 漸次 最後段階에 이름에 따라 戰局의 最前面에 뚜렷이 나타날것은 伊太利로서 好機會를 노리고잇는 伊太利가 [illegible] 이千載一遇의 機會를 넘기려는것은 萬無할것이다. 伊太利의 向背如何는 戰局에 決定的影響을 招來할것으로 [illegible] 英佛이 通商交涉의 形式으로 最大限의 讓步條件을 羅列하여 伊太利의 懷柔工作을 [illegible] 하며 루즈벨트米大統領이 累次 뭇소리니首相에게 親書를 보내어 [illegible] 伊太利를 自己陣營에 끌어드리는 또는 적어도 好意의 中立을 嚴守시키려는 策略이아닐수업다고 할것이다.

三

그러면 當事者인 伊太利의 態度는 如何하다고 볼것인가. 伊太利가 豫備兵을 續續 召集하고 또는 무大首相이 軍首腦部와 屢次重要協議를 거듭하며 自家用自動車의 使用禁止, [illegible] 等 國內戰時體勢強化에 努力하는 一方 民衆은 反英示威를 繼續하고 또 伊政府機關紙까지 『伊太利는 地中海의 囚人의 地位에 滿足할수는업다』 또는 『英佛外交의 欺瞞外交는 表面伊와의 國交調整을 熱望하면서 [illegible]』라고 [illegible] 國軍事通信에서는 [illegible] 放送하고잇다. 그러나 어느 [illegible]

四

[illegible] 伊太利가 參戰不可避라고 [illegible]

關西行幸御日程

【東京電話同盟】 天皇陛下께옵서는 光輝잇는 紀元二千六百年에 際하사 親히 伊勢神宮을 비롯하사 山陵, 神社에 御參拜하옵시고저 來六月九日 東京御發輦, 京都에 行幸하옵신다. 關西의 御日程及 [illegible] 內省으로부터 發表되엿다.

◇宮內省發表 ▲六月九日 午前九時十分 御出門, 同 九時二十分 東京驛御發車, 午後五時三十分 京都驛御着車, 同五時四十五分 京都皇宮御駐輦 ▲六月十日 午前七時五分 京都皇宮御出門, 同七時二十分 京都驛御發車, [illegible] 山田驛御着車, 豐受大神宮 [illegible] ▲六月十一日 午前九時三十五分 京都皇宮御出門, 同九時五十分 京都驛御發車 [illegible] ▲六月十二日 午前十時京都皇宮御出門, 仁孝天皇山陵, 英照皇太后山陵御參拜, 同十一時二十二分 京都皇宮還幸 ▲六月十三日 午前八時十五分京都皇宮御出門 [illegible] ▲六月十四日 午前九時五分 御出門 [illegible] 午後零時二十分還幸

프란도르戰線聯合軍 降服은오직時間問題 三個處서兩軍激戰中

獨軍發表

【伯林二十九日發同盟】 獨軍重圍下의 英佛聯合軍은 續續단케르크港으로부터 脫出을 企圖하고잇다는 報道가잇는데 二十九日 獨官邊은 이를 否定하고 이제 프란도르戰線의 英佛軍約五十萬全部隊가 全部降服함은 時間問題로서 단케르크脫出은 奇蹟만이 할수잇는것이라고 言明하엿다.

【巴里三十日發同盟】 佛軍司令部發表=二十九日 國境이젤河畔과 산트멜東北캇셀附近地區及 솜므河畔의 三個所에서 被我間에 激戰이 展開되어잇다.

獨軍、릴市完全占領 南北聯合軍連絡斷絕

【伯林二十九日發同盟】 白耳義軍의 降伏에 依하여 作戰行動에 매우 彈力性을加한 獨軍은 二十九日 海岸線에 集結하여오스텐드港을占領하고 更히英軍에게 남어잇는 唯一한 海港인 단케르크로 向하여 猛烈한攻擊을 加하여 退路遮斷의 完璧을 期하고잇는데 一方릴市로向하여 東西兩方面으로 進擊을 繼續하고잇는 左右兩翼部隊도 二十九日 드디어 릴市를 完全히 占領하엿다. 어리하여 獨軍의 包圍網은 南北으로 二分되어 릴以南에 集結된 佛軍과 北方의 英軍과는 完全히 連絡을 遮斷當하고 孤立無援狀態에 陷하엿다. 獨軍은 第一軍第一軍과 第九軍의 部隊에 모두 갑랑元帥自身이 育成한 精銳機械化部隊로 어예 多數의 白耳義避難民을 加하여 겨우 二十키로平方 (明東京市內程度)의 地域에 壓縮되어잇다. 이에 對하여 北方의 包圍網도 五十키로平方으로 縮少되어 二十五萬의 英國大陸派遣軍도 獨軍의 三方面으로의 急追에 刻刻海岸線으로 追擊을바드면서 潰滅에 瀕하여 本國에 逃走함은 全然 絕望이되어 全軍殲滅이냐 無條件降服이냐의 決定은 바야흐로 目睫間에 迫하엿다. 何如間作戰의 一段落은 獨軍의 機動作에 依하여 明日中에 今明日中에 終了되고 이어서 對英攻勢乃至佛攻擊作戰의 第二段階가 開始되기로 되엿다.

血路打開中 佛軍司令部發表

【巴里二十九日發同盟】 佛軍司令部 二十九日正午發表

一、北佛에서의 英佛聯合軍은그 傳統에 背反치안는 勇敢으로 써激戰을 展開中이다. 過去十五日間의 北佛의聯合軍은 友軍도업시 孤立하게되엇는데 이에 對하여 獨軍은 間斷업시 兵力을 增強하엿다.

一、獨軍은 東西로부터 不絕히 攻擊을하엿는데 聯合軍은 이에 抵抗陣地를 死守하며 或은 頑强且 勇敢히 反擊을加하고잇다.

一、이젤河及 오스텐드 北東海岸方面에서 防戰하고잇던 聯合軍이 매우苦戰에 直面하엿슬때 레오폴드 三世의白耳義軍降服命令이잇서 이프르, 투르[illegible] 이리하여 브라샤르將軍이引率하는 佛軍은 그 프리우將軍麾下의 英派遣軍과 協力困難한 戰況下에 後方의 海岸線에 血路를打開中이다.

一、佛海軍은 海上으로부터 이를 援護하고잇다. 一方撤退部隊를 掩護하고잇다.

一、聯合軍은 [illegible] 死守되고잇다.

英將校放送

【倫敦二十九日發同盟】 聯合軍의 르네단케르크에의 길은 獨軍에게 遮斷되엿다. 勇戰도 獨軍機械化部隊의 猛進에 對抗할수업서 드디어 프란돌을 放棄하지 안흘수업게 되엇는데 二十九日 同戰線으로부터 倫敦에 돌아온 英國派遣軍一高級將校는 同日夜 英派遣軍戰線事情과 退却할수밧게업게된 經緯를 左와如히 放送하엿다.

我派遣軍은 벌써 東方戰線에서 白耳義軍과 合流한以來 連日敵의 猛攻에 이은猛攻에 直面하면서도 渾身의 勇을 떨치어가지고 死守하여 敵의 包圍를 粉碎 南方으로 退路를 開拓하지안흘수업게된 形勢가 되엇다.

國王과의 對立深刻 白政府、리市서 議會召集

【巴里二十九日發同盟】 巴里亡命中의 白耳義政府는 이제 國王과의 對立이 深刻化하여 抗戰貫徹의 決意를 가지고 二十一日 同政府首腦部는 中央佛蘭西要地 리모쥬에서 白耳義議會를 召集하고 國際上 地位確立等 緊急諸問題를 協議하기로 二十九日 決定하엿는데 當議에 出席할 上下兩院의 議員은 少하여 적어도 五十名이 參集할것이라한다.

一、白耳義의 國際上 地位確立
一、國王레오폴드三世의 法律上 資格決定
一、佛國內 居住의 白耳義人男子 徵集計劃의 完成

東鄕元帥命日祭

【東京電話同盟】 聖將東鄕元帥逝去後 滿六年 그命日인 三十日은 元帥의 命日祭가 嚴肅히 執行되엿다. 午前七時半 東鄕神社에서 祭典에 入하여 午前九時부터 關係者 三百五十名參列下에 [illegible] 伊太利大使館附武官 프리리大佐도 参列, 故元帥의 遺德을 追懷하엿다. 聯邦提督의 靈前에 花輪을 獻上하고 敬虔한 祈禱를 드릴것이다.

身分保障令撤廢 今日閣議에附議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 官吏制度改革의 第一步로 三十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 開催된 法制局原案을 中心으로 한 次官會議에 附議된 文官分限令 第十一條, 第四項에 依하여 確立되어잇는 身分保障令制度를 全面的으로 撤廢하기로 完全히 意見이 一致된後 足例閣議에 附議하기로 決定되엿다. 更히 外國政府의 日系官吏의 保護를目的으로한 年限擔保의 問題는 새로 特例에依하여 어름實行하기로하고 이것을 三十一日閣議에 附議하기로 되엿다.

砂糖購入制 省令公布實施

【東京電話同盟】 砂糖配給制는 全國六大都市에서 六月一日及 五日부터 一齊히 實施되는바 이에 依하여 一部販賣業者가 勝手로 町村에 가서 砂糖을 買占할 念慮가 잇스므로 商工省에서는 [illegible] 施行區域外의 砂糖配給을 確保하기 爲하여 砂糖購入制에 關한 省令을 卅一日公布 即日實施하기로 되엿다. 그 要旨는 [illegible] 冰糖 角砂糖 [illegible] 居住하는 市, 郡, 島(北海道는 [illegible])

國內向砂糖配給機構陣容成立

日本砂糖配給會社創立

【東京電話同盟】 國內用砂糖의 一元的配給機關으로서 設立準備中에잇는 日本砂糖配給會社는 卅日午後二時부터 丸內糖業協會에서 開催된바 砂糖製造各社及代理店關係代表者二十條名이 出席하여 定款을 承認하고 社長에 藤山一郎氏以下如左히 重役陣을 決定하엿다.

社長 藤山愛一郎
常務取締役 水谷源太郎
(前大日本製糖大阪里工場長)
同 安部德次
取締役 王光益助(代理店主)

同 山田貞雄(明治)
同 石川昌次(臺東)
同 布施保次(臺灣拓殖)
同 三神高明(三井物産)
監査役 內藤良平(臺灣)
同 小栗良三(帝糖)

同社의 機構는 生産各社로부터 [illegible]

滿洲國、匈牙利 公使를交換 兩國關係漸次親善

【新京三十日發同盟】 匈牙利國은 滿洲國에 對하여 아그레망을 要請하엿으므로 滿洲國政府는 昨年一月九日 滿洲國을 正式承認하고 更히 同月二十四日 防共協定에 參加하여 兩國關係는 漸次 親善의 度를加하여와서 今回 公使를 派遣하기로 되엿다. 匈牙利政府에서는 兩國의 親善을 一層增進시키고 自國으로부터 公使를 派遣하게로 되어 初代駐日公使 조르쥬·기가[illegible]가 初代駐滿公使를 兼任하게 되엿다. 昨年十一月 日本에 着任한 任狀捧呈한 [illegible] 駐日公使 呂寬文氏가 兼任할것이다.

鐵道局長會議

【東京電話同盟】 鐵道省에서는 來月三日 午前十一時부터 本省에서 全國鐵道局長會議를 招集하고 今年度實行豫算施行方法及貨客輸送對策을 協議할것이다.

又復 감랑元帥自殺說 伊紙特派員報道

【羅馬廿九日發同盟】 佛國軍司令官을 罷免當한以來 감랑元帥身邊에 關하여 여러가지風說이 傳하는데 廿九日 포포로·데·이탈리아紙의 巴里特派員은 갑랑元帥는 自殺한것이라고 報道하여 同特派員은 更히 前者 獨軍의 捕虜된 第九軍團長 前任者로 報將軍도 敗戰을 理由로 處刑되엿다고 報道하엿다.

(寫眞은 감랑元帥)

獨潛艦又復活躍 西班牙海서商船을擊沈

【뷔고(西班牙)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 西班牙 뷔고近海에 獨逸潛水艦이 나타나 突然 英國의 汽船 二隻을 攻擊하여 擊沈하엿다. [illegible] 船의 船長은 [illegible] 獨逸潛水艦의 活動은 去四月九日 [illegible]

【마드리드二十九日發同盟】 뷔고港近海에서 突然獨逸潛水艦이 出現하엿다 [illegible]

클립스英特使 大使로任命乎

【倫敦二十九日發同盟】 英蘇通商交涉을 爲하여 特使로서 莫斯科로 急行中이라고 傳하는 스태포드·크립스는 [illegible]

十億弗追加 米陸軍關係豫算要請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 歐洲戰爭의 急激한進展에 따라 米國의 軍備擴張은 더욱 切實하게 되어 米國陸軍의 機械化를 完成시키고 더 十億弗의 追加豫算이 實現되면 陸海空軍의 豫算은 來年度總額약 七十一億弗이 될것이다.

米國中立法規 一部修正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 國務長官은 中立法運用規定의 一部를 修正하여 米國船舶의 加奈陀에 [illegible] 發表하엿다.

天津白國銀行 獨人預金支拂停止

【天津三十日發同盟】 獨軍白耳義進駐後 本國政府의 指令으로 世界各地에 散在하는 白耳義國銀行支店 乃至同國系 [illegible]

恐怖에떠는重慶 破壞、炎燒建物八百餘

【香港三十日發同盟】 重慶來電에依하면 二十九日 [illegible] 重慶市中心部에 大損害를 주엇다 [illegible]

廣西補給路爆破

【〇〇基地三十日發同盟】 南支〇〇基地 [illegible]

一、賓陽 [illegible]
一、[illegible]

秘露政府外相 遺憾을表明 리마市排日事件解決

【東京電話同盟】 지난十三日 리마에서 勃發한 排日暴動事件에 關하여 帝國政府는 直時佐藤公使로 하여금 秘露政府에 對하여 嚴重抗議를 提出시키는 同時에 將來에잇서 在留邦人保護에 對하여 同國政府의 誠意를 要求하엿는데 이에 [illegible] 解決되엿으므로 이를 [illegible]

外務省情報部發表

秘露國外務大臣은 五月二十七日 往訪한 리마駐在 北田公使에 對하여 『無知한 民衆이 一部의 煽動에 依하여 이 事件을 惹起한 것은 實로 遺憾이다 速히 問題를 解決하여 國家에서 支給할 것이다』고 言明하엿다.

定例參議會

【東京電話同盟】 三十一日午前十時 [illegible]

貴院皇軍慰問團 七月上旬來京

貴族院議員 在滿皇軍慰問團 一行은 七月上旬 [illegible]

▲第一班 (河瀨眞子, 橋本辰, 鄕氏, 守屋[illegible]) [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第二班 (西尾忠方子, 淺田良逸子, 平沼騏三氏, 事務官 富山 [illegible]) 安東經由 七月四日早 [illegible] 京城着 [illegible]

◆生糸後引◆ 市 九 (三十日) 前場 [illegible]

辭令

任總督府林業試驗場技手 總督府林業試驗場技師(七等) 門馬 博
同 同 前 芳雄
任京城帝國大學豫科敎授(七等) 矢野 [illegible]
任總督府鐵道局副參事(七等) (各通) 總督府鐵道局書記 [illegible] 光明
任京城帝國大學助敎授 [illegible]
任京城帝國大學豫科敎授(六等) 梶 圭之助
任朝鮮公立高等學校敎授(五等) 熊本醫科大學助敎授 緒方男十郎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七等)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宮邊 重太
任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七等) 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北島 末男
補京城公立農業學校敎諭 同 重川 逸嗣
任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七等) 補水原公立農業學校敎諭
任總督府道技師(七等) 總督府平安北道勤務 一色[illegible]太郎
任總督府道技師(六等) 命平安北道在勤 池上[illegible]雄
任總督府技師(六等) 總督府道技師 松澤 太郎
兼任總督府技師(六等) 命慶尙北道在勤
任朝鮮產業技師(七等待遇) 補黃海道產業技師 高村 [illegible]
任總督府技師 總督府遞信技師 村上[illegible]之助
陸敍高等官六等 總督府技師 細江國次郎
總督府營林署技師 村岡 博[illegible]
總督府農事試驗場技師 高崎 達[illegible]
依願免本官(各通) 總督府道警視 三浦 又一

뻐더가는大京城 八十萬 市民渴望의學園住宅地開放!!

住宅投資 에 最適地 南方向地形 學園保健鄕

現地說明 新綠이 무르녹은 學園住宅地는 眼前에 京畿工業學校의 新築敷地는完成되여 新裝校舍鋒立하고 成南中學校의 着工할豫定으로 또 隣接地에 近日中新校舍의建設에 中央保育專門學校等의 敎育機關完備하고 附近에는數百年前의 歷史를가진 淸淨樂土의舊跡靈地에建設한 法德溫泉이잇스며 交通도 또한至便하여市中의騷音을避하여 綠樹林에안기고 南方에는 冠岳山을望하고 멀리北漢山을 보게되는그自然美는 保健과衛生에 重大한使命을다하는 理想의境地이다 大都市計劃道路도 이미着手하엿다

特徵 現地에는電燈 晝夜線配線이 自由 附近까지 電話設備 가잇스며 大道路에面하여 空氣淸澄 오존發生이만흔 保健의 最適地이며 子弟의敎育機關完備 溫泉及遊園地接續 朝夕의散策 日曜休日의하이킹等 四季의 情緒豐富한吾等安樂의鄕 土로서 推奬하고도남을住 宅地이다

現地까지二十四메-타道路의完成을 보게될것도不遠하다고미드며 其飛躍的發展은 눈이부시며 가장將來性이만흔住宅地로當社는 玆에諸賢의高評을밧자와分讓速賣코저한다

城南學園 住宅地大速賣

京城工業學校 法德溫泉 終点 鷺梁津驛 冠岳山 分讓地

(雨天順延)
◉期日—六月一、二、三 (三日間)
◉豫約—八圓以上은賣出前에豫約에應함
每日午前八時부터現地에서營業開始 豫約日로同賣出과同時에締切
◉單價—一坪六圓부터十五圓內外 (一區劃百坪內外)

優待案內 視察하실분은 鷺梁津驛前當社案內所까지 와주시면 案內해드리겟습니다

御契約方法 契約과同時에着手金으로서代金의三割 更히一週間以內에內金三割殘金은 登記와同時에拜受합니다 支那事變公債로도歡迎

第一土地建物合資會社 京城府西小門町三三六番地 電話光化門 一八二六番

貧血 結核 治療豫防 胃腸 機能强化

ネオ肝精

먹기쉬운 肝油精劑 鱈肝油濃厚汁配合 發明特許

藥價 [illegible]

內容見本及び「新榮養讀本」無代進呈

發賣元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奉天大和區加賀町 NK1564

表裏兩面 ─三─

창피당한洗濯비누

各自가애껴쓰면問題가업는석냥

洗濯비누 석냥 篇

[illegible]

混雜한鐵道全線에 旅客列車大增發

安東、釜山間急行一往復、京仁線에三往復、其外區間列車等

鐵道局다이야改正十月에實施豫定

철도여객이 날로날로 격증할 수요는 전도로 작구늘고잇스므로 철도국에서는 엄마큼이라도 그혼잡을 덜고자 방금려객열차 증발의 게획을세우고『다이야』개정에 힘쓰고잇는데 대체로오는시월부터 실시하게될 모양이다 그내용을보면 부산 안동(安東)사이에 급행렬차 일왕복을증발을비롯하여 경성 인천 사이에다는현재 하로에 열다섯번씩 왕복운전하는것을 삼왕복을 더늘려서 하로십팔왕복을 할작정이며 그밧게 경원선을 비롯하여 간선에 구간렬차를 증발할 게획이다 이것을 실시하게되는때는 조만간의 고통을 철신히하게될것이다 현재게획하고 잇는렬차증발의 자세한 내용을보면다음과갓다

▲釜山―安東間 부산안동사이에는 요즘 운전하고잇는 부정기급행렬차를 정기급행렬차로만든다 그리하여 결국부산 봉천사이에 급행렬차 일왕복이 늘게된다

▲平壤―滿浦間 평양만포사이는현재 직통객차 일왕복밧게업는데 [illegible]

▲京城―仁川間 경성 인천사이에는 현재하로 십오회왕복운전이나 [illegible] 삼왕복을 증발한다

▲京城―土城間 경성 토성사이에 일왕복과

▲土城―新幕間 토성 신막사이에 이왕복과

▲馬山―晉州間 마산 진주사이에 일왕복과

▲裡里―木浦間 리리 목포 사이에 일왕복식을 각기 증발한다

▲議政府―鐵原間 의정부 복계사이와

▲京城―咸興間 경성 함흥사이와

▲咸興―城津間 함흥 성진사이와

▲城津―輸城間 성진 수성사이에 각기일왕복식 증발한다

이가운데는 현재 운전하는구간을 더 연장하게 될것도잇슬터이다

李王殿下御榮轉

大阪在任朝鮮人은感激의極!

兒島李王職次官談

【釜山電話同盟】 참근(參勤)차로 도동중이던 아도(兒島)이왕직차관은 삼십일아침 부산에 상륙하여 『아까즈끼』로 귀경하엿는데 차중에서 다음과가치 근화(謹話)를 발표하엿다

이왕전하(李王殿下)께옵서는 이번 대판(大阪)부대의 요직에 [illegible]

기달리고 잇다 전하께옵서는 [illegible] 비전하(妃殿下)께옵서도 백의용사를 [illegible] 제일선장병에 일문주머니를 보내옵시는등 [illegible] 감격하여 마지안는바이다

梨花高女校의

五十四週年記念式

十年勤續教員도表彰

부내정동에잇는 이화고등녀학교(梨花高女)에서는 삼십일오전 [illegible] 기념식을 [illegible]

府營水泳場

開場無期延期

경성부영 수영장(水泳場)은 삼십일에 개장할예정이엇든것인데 [illegible] 무기연기하엿다

間島氏의美擧

消防自動車寄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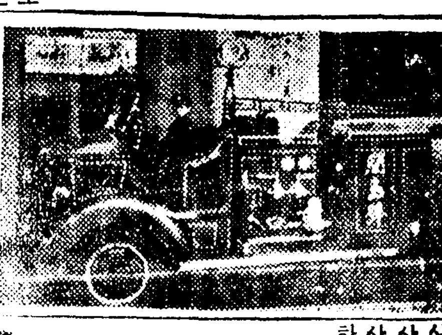
경성소방서에서는 해마다 늘 [illegible]

野口消防署長談 간도(間島)씨 [illegible]

府內"急行電車"

六月以後도繼續運轉

[illegible]



朝鮮씨름協會

바른씨름有段者發表

朝鮮씨름協會와 朝鮮씨름同人會에서는 第一回朝鮮씨름選手權大會를 마치고 외씨름選手의有段者를 發表하엿는데 今番에는 바른씨름의有段者를 다음과가치 發表하엿다 그리고 同協會에서는 朝鮮의固有國技인 씨름과또 柔道에對하여 向上發展을 企圖하는意味에서 中央力武館을 創立하려는 後援會를 組織準備中이라고한다

◇바른씨름有段者

▲初段者四名 [illegible]

▲二段者八名 [illegible]

▲三段者六名 [illegible]

新人拳鬪大會

今日YMCA에서

[illegible] 今五月三十一日과 六月一日의 兩日동안 每日午後七時부터 鍾路中央基督教青年會館에서 新人拳鬪大會 [illegible]

[illegible]

學生蹴球리그

法專、世專이各勝

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 朝鮮蹴球協會後援 [illegible] 昨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illegible] 法專과 世專이 勝利하엿다

【法專】 2 (1:1 / 1:0) 1 【中專】

【世專】 2 (1:0 / 1:0) 0 【大豫】

全朝鮮學生野球戰

延專軍이大敗

朝鮮學生 野球聯盟主催 全朝鮮學生野球戰第六日 [illegible] 決勝戰 [illegible]

	1	2	3	4	5	6	7	8	9	計
延專	1	0	0	0	0	0	0	0	0	1
醫專	3	0	5	0	0	2	0	0	[illegible]	10

實業庭球리그

[illegible]

延、普專昨日到着

○(朴師澤 崔永泰) 4―2 (大城 金亨泰)×

[illegible]

橿原競技場

陸聯에서正式公認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大會參加選手役員數

	選手	役員
國別		
日本	一六四	七四
滿洲	一五九	三七
比島	七一	五

中華三代表神戸着

【神戸電話同盟】 [illegible]

滿洲代表一路東上

【門司電話同盟】 [illegible]

日本代表選手

軍人會館서結團式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野球週日擧行不可能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東京大會野球팀

關西大會出場決定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日本選手派遣數

[illegible]

平南에豪雨

[illegible]

	二十八日	二十九日
鎭南浦	一八、七	[illegible]
順川郡	三、〇	三九、〇
孟山郡 / 陽德郡	[illegible]	[illegible]
成川郡 / 江東郡	[illegible]	[illegible]
中和郡	一八、〇	五、八
龍岡郡	一九、〇	五、四
江西郡	一五、〇	一五、〇
平原郡	一四、七	三三、七
安州郡	一六、六	三一、〇
价川郡 / 寧邊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七、〇	五二、〇
二十八日平均雨量 / 二十九日平均雨量	[illegible]	一二四、〇

"最後의勝利는우리便에"

★……召集令바든佛國靑年父두사람의感想

[illegible]

赤十字에獻金

[illegible]

夫人의얼굴에喜色이滿面!

金復鎭氏家庭

[illegible]

特選作品이나오기까지

[illegible]

아직까지좀더努力이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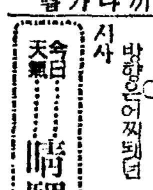
沈亨求氏談

[illegible]

五山中學校에서

美濃部大佐講演

【古邑】 오산중학교(五山中學校)에서는 [illegible]



今日天氣……晴驟雨……

百補丸은 世界的强壯劑로判定!

警報!

夏節엔 健康이危險

●豫防과治療에 百補丸을쓰라!

一、夏節이되면 肉體와精神이 疲勞하여 衰弱體는危險에 빠지게되고 健康體는虛弱하여집니다

二、肉體的疲勞 精神的疲勞를 防止하며健康한몸이되려면 抗病力을길러야됩니다

三、抗病力이라는것은 胃腸이 튼튼하여飮食物을 잘消化시키고 또 血液과 精氣의循環이活潑하여 百病의侵入을 擊退시키는힘입니다

●補藥의選擇

四、補藥中에는一時的若干의 刺戟으로消化機能을衝動시키어서 多少消化가잘되게하는 藥이잇스며 又는腎臟을刺戟하야虛陽을生케하는事有하나 이런藥은 도리어危險합니다 服藥을中止하면服藥前보담 오히려 症勢를惡化시킵니다

五、故로服藥하시려면 根本的으로 身體組織을 뿌리채휘돌추어病根을 샅샅치터러버리고四肢百體에 新活力을 주며五臟六腑에 霹靂的革命作用을이르키는百補丸을쓰시요

●百補丸은임이

六、世界的强壯劑로判定되여滿洲支那는 勿論歐米各國에서 注文이遝至하며朝野名士의實驗濟保證品이요 藥効의卓越함은事實이確實합니다

七、此藥彼藥을感服하는것은金錢의浪費요 病勢의助長이오니 服用家全部가證明하는百補丸을곳쓰시요 ●期必코健康하여집니다

百補丸

金게納無料進呈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一、夏節이되면 [illegible]

二、그러나今年은 [illegible] 百補丸中 [illegible]

三、[illegible] 百補丸 [illegible]

四、六月末日까지百補丸을注文하면서 [illegible]

五、金게納品切時는 [illegible]

(注文時에 [illegible])

藥價 百補丸一劑拾圓 婦人百補丸一劑七圓 少年百補丸一劑五圓

無代進呈 [illegible]

자랑할 百補丸의 効力

[illegible]

調經胞胎 婦人百補丸 補血强壯

平和堂株式會社 內ルビ 百補丸株式會社

京城堅志町五一・電光六二三・六三三・三三〇番・振替京城二六五五番

中部版

雇傭女行方不明

住宅難緩化策으로 櫻町에 七百戶建築
小住宅地造成코 年賦로 賣却

【仁川】인천부내에는 근년사변이일어난후 생산확충에 따라 각공장의진출이 늘어가는한편 인구증가도 [illegible] 주택난이심하다 [illegible] 앵정(櫻町)에다가 소주택지로 [illegible] 칠백호주택을 우선건축하기위하여 [illegible] 만들게되엇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들평수는 일만구천사백평이며 내년도에 [illegible] 일만구천이백평이라 이곳에진출 세울희망자는 인천부사회과에 자세한것을 알어가지고 그땅을 연부로사서 가면 [illegible] 리라한다

結婚못한것悲觀 青年飮毒自殺

經濟統制協力會 晋州에서組織

熊本農場에서 作人을無料診療

刑事라고假稱코 늙은寡婦를脅迫
공술에貞操까지蹂躙

濁酒密造가盛行

長湍郡養蠶掃立 今春三千枚突破
桑葉生育狀態도良好

"公定價달린食料品 斤量으로팔도록"
仁川署서業者에警告

身病을悲觀코 七十老婆自殺

山菜캐는村婦들……(榮州)

汶山神社參道落成
臨津警防團勤勞奉仕로

數萬餘蠶島面民의 食糧問題完全解決
高陽郡食糧配給組合斡旋으로

中朝鮮野球大會
本報水原支局主催로

海軍記念日奉祝

鷄의虎列刺猖獗
忠北道當局防疫에努力

平康郡民待雨聲

母姉會運動會開催

廢品回收해獻金
楊口各婦人會서

襄陽鐵鑛電氣工事

水道무쇠두껑떼던 불가사리逮捕
仁川署에서繼續取調

注文津軍도出戰 關東蹴球大會에

搜查는雙線으로 癩患者? 變態性慾者?
唯一한證據品은아까시아短杖

(定平少女慘殺事件續報)

料亭、카페、빠等의 深夜營業을團束
仁川署에서注意喚起

水利組合長問題로 地主들도陳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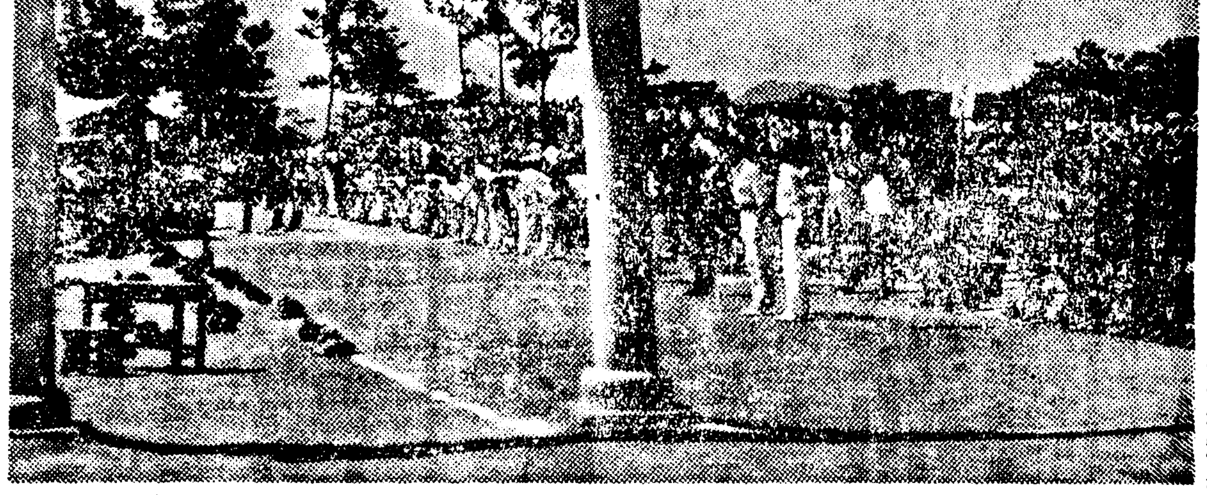
郡內十二小學網羅 初等校聯合大運動會
坡州郡教育會主催下

고등어잡이始作

洪君서脚戱大會

遊食民根絶方針

上坪小學增築 基金萬圓도造成



仁川

第二回 全朝鮮弓術大會

▲期日 五月卅一日、六月一、二日
▲場所 仁川府桃山公園武德亭
▲大會參加金 三圓
◇主催 仁川武德亭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仁川商工協會

水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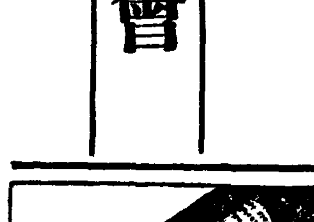
第十一回中朝鮮軟式野球大會

▲時日 六月十五、十六兩日間
▲場所 水原公設運動場
▲申請場所 水原運動俱樂部、水原支局
▲申請期日 六月十二日까지
▲參加金 [illegible]
◇主催 水原運動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水原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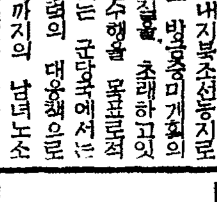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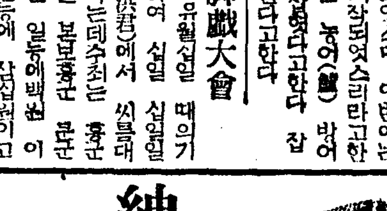
永登浦

第七回 畿湖蹴球大會

▲時日 六月一、二、三 三日間
▲場所 永登浦放鶴臺運動場
▲參加金 各團體四圓
▲觀覽無料
◇主催 朝鮮日報社永登浦支局



治淋內服特效劑
チユ-サイド
G-U-CIDE

紳士 男女 洋靴 校靴
早進代無第次求請錄型
平安製革社洋靴部

淋疾의 短期療法

齒痛에
못견디게괴롭고 짜릿짜릿아파서
잠시도못참을괴로운齒痛입니다
바르면곳낫는今治水를잇지마시고
不時의齒痛에準備해주십시오
곳낫는
今治水
主効 蟲齒의痛症 齒齦의痛症 神經、肩胛痛 頭痛으로오는齒痛
發賣元 丹平商會

晩春에서初夏로
여드름을除去……
죽은깨를解消
見本進呈
本舖 株式會社 杉田商店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振替東京七八四六一番
アモンパパヤ

頭痛·頭重·上氣에
ノーシン
明朗코 爽快케
效果가速하고、安全!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好評의頭腦藥

長篇小說
青春茂盛 【67】
李泰俊 作 / 鄭玄雄 畵

다시불나비 (五)

은심과 정선은 자정이나 되어 돌아왔다。

치원은 그때까지 가지 안코 잇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엇다。 먼저 들어서는 정선이가 냄새로운 눈으로 치원의 얼골을 살피며

『어래 안 주무셧세요?』 뭇는다。

『네』

은심은 정선의뒤를 따라들어서더니 치원은 보지도안코정선이보다 먼저구두를벗고 저이방으로 들어가버린다。

조곰뒤에 치원의방에 똑똑노크소리가난다。 치원은 가슴이울렁해일어선다。

『네』

『저예요』

정선이였다『비와』를안겟시담어 드리는것이다。

『긴사미아게야요』

『고맙습니다。잘 먹겟습니다』

가저오기는 정선이 다돋어지가 호롱호롱울린다。 그방쪽을 향해 귀를 밝힌다。 은심의 향기가 풍겨오는듯 은심의 숨소리가 얼골에 와 부딧치는듯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보면 자기 자신의 맥내요 자기자신의 숨소리엿다。

치원은 다시 자리로 와 눕는다。 은심이도 결코 잘들엇을것 갓지 안타。 기침소리라도 내여면 은심에게서도 기침소리가 울려올것만 갓다。

『기침을 해볼까?』

치원은 그제야 자기 입속이 탈듯이 매마른것을 느낀다。 한참이나 엽안을 축여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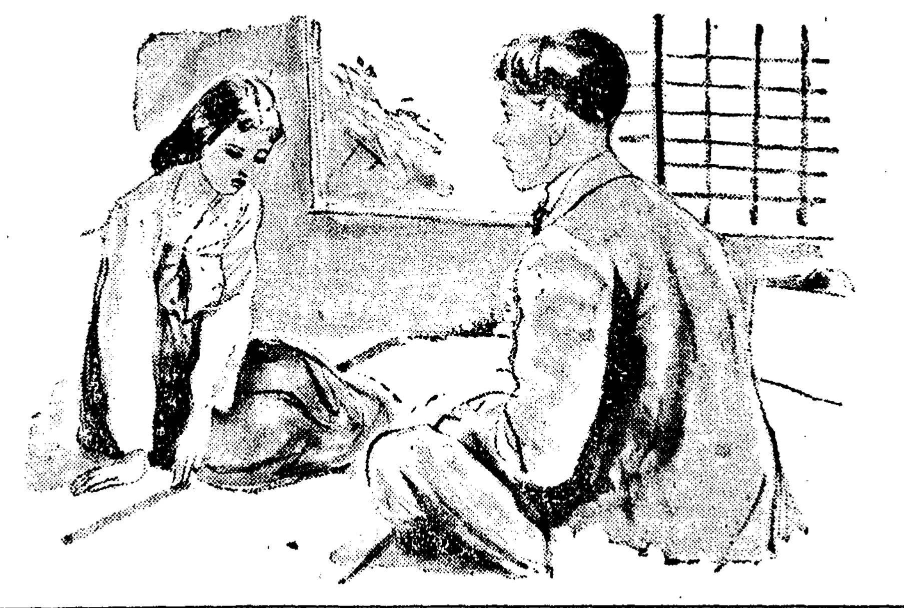
『에헴』

소리를 내여보앗다。

너머나 조고마케 나와젓다。

치원은 쓰징을 삼키고、그러나 혹시 은심에게서도 기침소리가 울가하고귀를 기우렷스나 잠잠하밤만기피갈뿐이엿다。

여름밤이 기퍼야 얼마나오랠것인가만은 한잠도 들지못하고



만 마음씨는 은심의것이어 더만히 닮기엿거니、하면서 치원은 『비와』여라므개를 다머멋다。

잠이오지 안는다。

『은심이가 지금지척에 잇다! 두거름만 나서문을 열면 잇다! 나를 과저와주거다! 그먼길 차를 타고 바다를 건느고 또 그지리한 찻속에서 목개면서 불사조(不死鳥)와가치 성성하게 내아페 나타나주어섯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이냐! 오리오리한 행복을 내가 어 아모런 대가도 업시 누려도 좋을가?』

치원은 불을 끄고 유리창으로 방공하는들을 처다보며 삭벼어만때、서울서 은심의 편지를 받던날밤을 생각해내엇다。

그날밤 서울한들은 별마다금강석처럼 찬란하엿다。

『그날 온 은심의 편지엔우리의 창조한 우리의 천지우리의 영토 안에서야 우리가 부자유 해야할 무슨 이유가 잇습니까? 하엿다! 오!인젠 내가 교원이 아닐뿐 아니라 은심도 생도는 아니다! 더욱 여기는 동경이다! 친특수도 바로 저편이도 우리를 도덕적으로 간섭할 아모도업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부도덕한 음모하는 어둠의 사랑은 아니다! 오! 지금 저방에 은심양이 잔다!』

치원은 벌떡 일어낫다。다리꼬뻬새여 밝이는 치원에게는동지달밤 가튼것을 몃치나거퍼새이는것처럼 지리했다。

그러나 아침은 어김업시 와주엇다。

한번밝기시작한 아침은 뛰는듯이모든순서를 진행시켜준다。 조반을짓고 세수들을하고 조반을먹고 그리고 정선과 의선은 학교로 가고、집에는 치원과 은심만이 남는 순서에까지 이내 다다럿다。

은심은 정선의방에서 고요해젓고、치원은 자기방에서 고요해젓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제부터 파도가 일엇다。치원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머리를빗질하고、양말을 신고 호들호들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침착한 힘을 주며 은심의 잇는방문 아프로 갓다。 똑똑 노크를 한다。

『네』

문을 열엇다。

두볼이 대뜸발그레해지는 은심은 얼른 안즈한지를 단정히 고치며 이마를 든다。

치원은 덥석 들어와 안는다。 그러나 얼른 무어라 말을 못한다。은심도 가늘게떨리는 손끄트로 다다미바닥만 면적거릴뿐、치원을 다시는 처다보지도 못한다。

한십분이나 뒤이다。 치원은 어제저녁처럼 그러케 힘든 기침을 한번 내이고 그리고야

『은심?』

하고 불러본다。

趣味 娛樂

街頭音樂의姑息化
健全한趣味를要望

▼…요리점의 요리소리지 올리가고 기생의 화대가올라가고 거기따라서 도세금이보다더 기생아가씨들의고재수입도 전보다못해젓다는것 어서금의 울리는소리이다。

▼…그래서 그런지는몰라도하여든 어리한 요리점근방의 인가가 저라함에따라서그방풍으로『삐-』나차스점의 흥정이 조하저젓도 사실이다。 그다지 내부의장치나 요금의높이 조치아흐도하여든요리시점 가는것보다는 쌋니까、그저 어리 아쁨다투어올손님들께되는것이다。

▼…요즘의 촉동거리들은 어떠한 페군은 영업 매주를 노코 목을 추기는 이슥히 걸어보면『삐-』로 박치을 세우고엿는것、어져 루러의울려나오는 어려한경을 잡지 생각하여 보는것 기조흔 배를둥에마든지 목도 도 할거리의 질서를 정리 하게된다。그리고 를를 그 하다는 의미에서도 그다지 를의 전보가 다그럴라고는 동업는 처것는 아니것이다。 할수업서도 그중의 반수어 상은 사회적으로도 엄마마 자개주어으로서는 그렇이지

▲…손님어 멀리정에따라 듣어도 오히려 섭섭허지 예를를 그것도 한것 를 그러치만『레코-드』하나를 정을 어찌할수업는것이 귀방 우울해지고 를를 추 감어 도 ……

▲…『찌-버스』도 를를 시숙 쉽지운 순간을 가져다가 로로 를뿐아니라、제일 규들의『씨-버스』라는것 버두도 호라하고 아무런 모어ㅣ도『헨스』도 업는 은 재못 거부하기 쩍이 는것이다。여급은 우선 을 알아보는 영리한 눈 가질수 업을까 그리고 의 회장과 의복도 좋아 엇게 변경할수는 업을까 무리 회류계라해도 그래도 체면으잇서야 할것이다。

한 지역와 명성을 가진이 급것 알흡해오던『찌-비가 레바이것을 업는봐아도 쓴의 버식도 달라할필요가 엇는것이다。 그러나 요누어 정자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말하자면 어 둘의『삐-』경영자들은 비려한 교양잇는 개업을 고 무도 어려한 방면에 무식 하고 무지한것을 볼때 우 적으로 마지하고잇슨 『 ㅣ』나『카페-』의 경영자 러는 그곳에 들어가 한잔

問題映畫『바람과함께가다』
英國戰時議會에서論爭紛紛

『아메리카』영화흥행계의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깨트리고 여러방면으로 부러상당히만흔 여론을이르킨『메트로』회사의 문제영화『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국에 잇서서의 공개는 이영화의주연자인『비비안·레이』양이동국의 출신이란 점에잇서서다시금『센세-슌』을 이르키어『런던』에 잇서서의 『로-드·쇼-』는 연일 대성황을이루고잇다 한다。

×……×

그래서 박금『클라이 막스에 다다르고 잇는전쟁으로 인해서머리를 썩이고잇는 각각료들도 출석하여 성대히진행되엇던바 마침내 이것은전시의회를 이르키게까지 물샹사를 비저내엇다한다。

×……×

이것은『고-몬·오데』개통의 칠백이나 되는영화극장이『메트로』가 요구하는요금 칠십『퍼센트』는 부당하다고 『보이콧트』운동을 이르켜서 이것을 의회에 부친것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전수상『로이드조-지』씨는 정부 무역국측에서서

『〃아메리카〃에서도 칠십〃퍼센트〃의 요금이 인정되엇섯스니까 여기를 단번에부당하고는 말할수업다』

여가처 답변하여 사월말부터 오월초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평왕한 논쟁이잇섯다한다。

×……×

이논쟁은 잘못서투르게 처결할것가트면 전시영국의 대무역방침에 적지아니한 영향이잇스므로 의회에서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잇섯던바 여것도 엽마전에독일군의 『마지노』선 돌파와함께 흐지부지된모양이라한다。

宋鎭爀氏獨唱會
來一日저녁·公會堂에서

이인선(李仁善)씨의 지노아래 꾸준히 성악을 공부하여오던 송진혁(宋鎭爀)씨는 동씨의 후원회 주최와 삼청유로원(三淸幼老園)후원으로서오는 유월일일 오후 일곱시반부러 시내 상곡정정 공회당에서 제일회 독창회를 개최하게되엇다는바 곡목은 다음과가트며 반주는 어경히(李慶熙)양이라한다。

(一)『꿈아 잘가거라』……크로라스曲

(2)(가)孤獨……同上 (나)나를잇지말라……同上

(3)(가)理想……토스티-曲 (나)織馬의〃기타〃……포스터曲

(4)歌劇『戀의樂』으로부터『남모르는눈물』도니제티-曲

(休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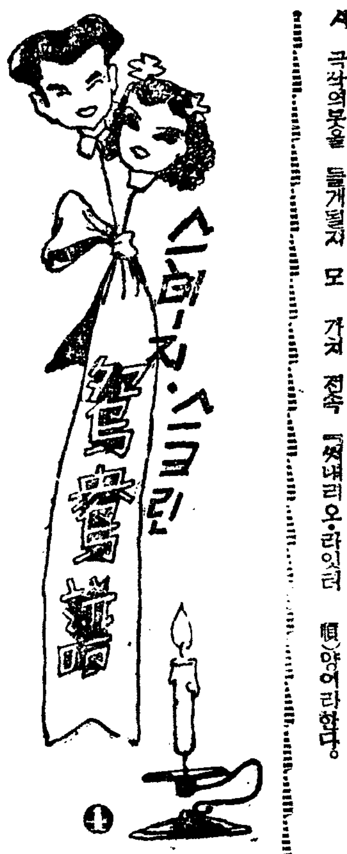
(5)歌劇『르이사·밀렐』『고요한서녁』베르디-曲

(6)(가)『별의노래』……(나)『니-나』…라라폐리-曲

(7)(가)薔薇(…)……베리-니曲 (나)사랑의노래……퍽크시오曲

(8)歌劇『토스카』로부터『별은빗나고』…푸치니曲

(사진은 宋鎭爀氏)



스테지·스크린 舞臺寫眞
『舞臺』는우리의일터
첫날밤의盟誓는 이것뿐

★李載玄 宋秋蓮 班

극단고협(高協)에서『결혼전야』조향천 한『라이-』에 올내걸고 부민관 무대에 조향천을 올렷슬때、담당 허주인공『춘향이』역을마라서 으로 분장한 박창환(朴昌煥)씨의 상대역을 훌륭히해 내 문이 바로 송추련(宋秋蓮)씨다。

그의 부군은—。

부군 역시 가튼 고협극단에서 맹우로 활략하는 이재현(李載玄)씨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지복은『뉴-쓰』일것이다。

선량 선부가 서로다 똑가치 나어도 어김업는한것 여 어울 행복한『커비』의 트생이며 자랑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도 수업시 축락 말다툼도 하고 작난도 한다는 손문이 잇다。

『추련씨! 어려지곰에 게시면 섭섭치 안하요?』

고양모(高陽郡)회장리를 나서 또한참『배쓰』를 타고가야 은평면(恩平面)대조리(大棗里)라는 동네에、어르게된다。

여기가바로 어르들의 신접살이가 경영되는 고협촌(高協村)인것이다。

기자는 그들을 찾자 우선 재색씨 추련양을 불들고 어러말을 물엇다。

그러니까 언제나 수집고 부끄러워만코 말이적은 추련씨는 한동안 머리를 갸웃하고말이엇더니

『여기가 조하요。조용하구 공기도 조쿠…』

하엿다。

『아마 재현씨가 업스면 하루도 심심해서 못견디실텐데요』

이러케 지근덕거러보아도 현 고가야 은평면(恩平面)대조리(大棗里)라는 동네에、어

『아이 몰라요…』

속으로 해버린다。

아직 결혼한지가 얼마되지안핫는데도 얌지마를 열고 오라가락하는품이 어디로보든지 살림꾼의 살로록한 티가 엿봐다。

×

『언제부터 서로 아시게되엇습니까?』

어번에는 부군 이재현씨에게도 말끄를 슬쩍돌렷다。

『우리요? 우리가 청춘안것은、참언제드라ㅣ。 여보우리가언제부터 알엇지?』

작난 조하하는 부군은짓짓 머리를 숙이고잇는 언해에게신대를 부친다。

『아이 내가그걸 어떠케알아요。』

안해가 약간 토쇼아본다。

기자는 이상한 틈에끼어서 한동안 어째야 조흘지 얼핏생각이 돌아서지 안하서 멍-하니 잇스러니까。

『허-저것좀 보십쇼、저러케 남편아페 번통이업답니다。』

부군은 이러케 안해의 태도를 자못 업숙허 변명해주엇다。

『아마 두분이 청춘하나신것은 고협에서죠?』

하니까 그제서야

『네』

『네、그래요。』

하고 그들은 똑가치 한창 울하듯 대답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에는 허셧습니까?』

『……。』

말이 이러케 벌어지니까 그들는모한 약속이나한듯이 똑가치 입을꽁하고 아모런 대답도 하지 안는다。

『네? 언세부러죠?』

한번 더재촉을하듯 물으니까 그제서야 재현씨는싱글슬 우스면서

『그게 아마고영(高映)서복지만디(福地萬里)를촬영할때갓습니다。』

한다。

복지만리를 촬영하러 섬경(新京)으로갓슬때 그곳에서 그들는모든 낫으로잡고 서로서로의 고백을하고 드디어는 청청한압길에 변치말고 가치 행복이자는 굳은맹세를 맨게되엇던것이라한다。

영와『복지만리』를 만들기것이아니라、그야말로 그들의복지만리를 실지로탐사하고 온셈이다。

『재현씨는 인제 마음노코 서울거리는 잘못걸어다니십니다。』

『왜요?』

하니까

하고 힘긋기자의 얼굴을처다본다。

『왜타뇨? 추련씨의〃팬〃이 어떠케 만흔데。재현씨가락 가로 챗스니 그럼죠。』

하고 슬쩍 눈치를 보니까 작난꾼 서방님 재현씨도 약간 얼굴을 붉히고 게면쩍여하는 눈치다。

그러자、

『여어、별말씀을 다 허세요。〃팬〃은 무슨 〃팬〃이 잇세요。』

하고 살짝 가늘게눈을떠서 이쪽을 향하엿다가는 다시 저편으로 고개를 도리키는것은 송추련씨다。

어어여쁜 안해는 언제까지나 어 수집고 부끄러움을 지랭해 가려는고—?

지방 순회공연이 엇스면 가치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게되면 거치 오고……。

그들은 언띄기 모두 베우언한지 어디를 가나 할 시도 떠러저 잇서본적이 업서서 서로 그리움을 여지 것 모르고 지낸다고한다。

『아프로 언제까지나 두분 다 연극을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럼요。』

『허구말구요。』

그들의 결심는 똑가다 초혼러 여러한 결심아래 그들의 오늘의 행복이 어러진것이라한다。

고협극단의 초창기부터지금것 노력을 아끼지안코 나려오든 이들에게 꿋꿋내 행복이 잇기를빌며 자리를 일어섯다。

演劇映畫

朴鄕民氏新京行

한동안 극단낭만좌(浪漫座)에서 꾸준히 개속적으로 극작을하던 박향민(朴鄕民)씨는 얼마전에 신경(新京)으로 떠낫다고—。

그러나 어번 길은 무스마음이 느긋한 영행도 아니고 다만 생활의 방법과 창작의 타개를 위한 작별이라처 언제 어느 서기에 돌아와 다시 극작의붓을 들게될지 모르는니까 지금 서울에 남아잇는 낭만좌의 여러 친구들은 벌써 업서진 친구를 기다리기에 기운어 지햇다한다。

劇作家金承久氏 朝映과專屬契約

중앙무대(中央舞臺)각본부에서 만흔희곡을 발표하엿고 최근에 어르러서는 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에서 감독을하는 극작가 김승구(金承久)씨는 어번 조영(朝映)과 전속계약을 맷고 아프로 조영에서 일을 전념하게 되엇다는바 어가지 전속『쓰내리오·라이터』ㅣ를 두기는 어번 조영(朝映)이 조선서는 벌로소 처음이라하여 일반의 파선은 크다한다。

方漢駿監督 二日開城서結婚

방한준(方漢駿)씨는 오는 유월이일 개성부(開城府)사회관(社會館)에서 안석영(安夕影)씨주례로 화촉의 성전을 어르게되엇다는바 신부는 저나복에 동경제국여자의학실문학교(帝國女子醫學專門學校)를 나온 어옥순(李玉順)양이라한다。

…演藝… 二十一歲의青年 六十老婆와結婚

유식면은 하라버지가 손ㅣ녀 샘된 세악씨를 어덧다는 이야기가—아니라 어것은 그반대 ……

三十一日(金曜) JODK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퍼-크드·래로프렁』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할어두실것 ◀同九時〇分 氣象通報 라디오뉴 ◀午後零時五分 序曲集(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피부病이야기』醫學博士 金晟煥 ◀同二時 紀元二千六百年記念咸南放送 音樂大會(咸興)「咸興府公會堂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觀象紹介 ◀同六時 어린이시간 어린이新聞 ◀同六時二五分 어린이시간 支那語講座 ◀同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二三) 李柏殷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佛敎의天道觀』 安寅植 ◀同八時 (東) 바이올린과管絃樂 바이올린協奏曲D長調作品六一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마、논、트롯포 第二樂章 라르게토 第三樂章 론도ㅣ 알레그로 바이올린 辻久子 管絃樂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朝比奈隆 ◀同八時五〇 京畿歌謠 一、遊山歌 二、赤壁歌 三、은률특 四、배룡가 張彩琪 李飛鳳 ◀同九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興夫歌 曹秀玉 鼓手韓成俊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

오디라 JODK

講演 (三十一日午後七時三〇分) 佛敎의天道觀 安寅植

다음과가튼 항목하에 유교의 천도관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一、천의 명칭과 의의 二、하늘의 형체로서본천도관 三、만물의 주재자인 의미에

衛生講演 (三十一日午後一時十五分) 皮膚病이야기 醫學博士 金晟煥

신장은 신진대사의 폐잔물인 뇨(尿)를배설하는 장기입니다 나는 어제얘기하는데 뇨의 성분등을 설명하며 신장병인 신장염 신우염(腎盂炎)、신장결석 신장결핵(腎結核)등의 병상과 그요법에대해서 간단히말씀드리고저합니다。

…娛樂…

◀유니버셜」회사에서 마루네·데이도리히」의 제이 회 주연 영화『죠-파스러ㅣ낙크』제작『청이의 죄인』의 감독는『데이거-넷트』 로결정되엇다『유』사의 작품이 감독으로서는 처음이고 또『데이도리히』와도처음이기때문에 그성과가 퍽 기대된다。

『스잘한실되는 동안에 나는 만흔 젊은여자들과 결혼하엿지만 내안해는 만나보지 못하엿다。 안해는 지적이 ㅣ 또 행해하고그후에 연정이 만코 젊엇다。』 『기묘한 결혼이지요 그러니 우리 남편은 참 훌륭한청년이여요 나는 그를영원히 사랑하겟서요』 하고 말하엿다 제밥이지 두부가 머리가 히도록행복스러게 바래될수도 업게 될것이다

『그구』씨는 말하기를 …

第一放送 六月一日(土)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六時三〇分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 料理製法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氣象通報 오늘할어 ◀午後〇時六分 體育歌謠(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淸凉飮料水의 衛生』 ◀同四時 뉴-스 觀象紹介 ◀同六時三〇分 月例童話『自然界에―』 …

第二放送

◀同六時三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國語講座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家庭의國民生活』 ◀女流文人의밤◀ ◀同八時三〇分 一、短篇의朗讀 一、隨筆 ◀九時三〇分 뉴-스解說 ◀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默 ◀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一〇時一〇分中等學校講座

◀午後〇時六分(東)나아가기◀六時二五分(編)傳說 ◀七時四〇分(東)講演 午後八時(東)時◀八時一〇分(東)講談 ◀九時四〇分(東)…月報◀九時(大)義太夫

日曜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一〇時一〇分 初步獨逸語講座

新緣棋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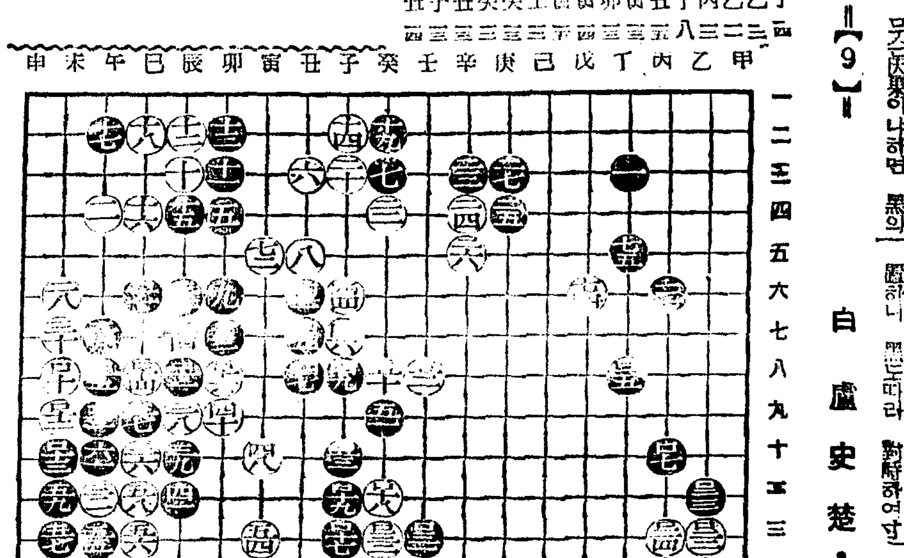
割鴻溝東西定界
一瀉千里的掃淸工作

觀戰記 權 東 都

兵法에 日 窮寇勿追 不歸方이라하엿다。 黑子의 一四는 그러高尙한 趣味가적다。 어는 무슨因果이 나하면 黑의 前日『마의八』에 잘못하야 大屋의 一四에 有力한 이 잇다。 白은 愉然被 手를하야 北屆部乙의 一二에 가 黑은 따라 對時하여 ……

十臺 議講치 안는다。 어로조차 兩陣의 關係를 除去하고 溝하여 東西定界하엿다。 다음 黑一二五는『離程右山格』으로 無路에 好着을 認한다。 白一二六은 그래도 宿願이 남아잇서 黑大馬를 攻하니 참으로孑身一身 都是險이로다。 그러나 그리해진 機會가 아니다。 차라리 王의九로 中央魚腹을 擴大시키면 安當할 黑一三三은 次第로 敗陣을 하여 癸의一三으로 …… 엽길이 去歸不及이라 實實진처。 次白一三六까지는 모두 一瀉千里的으로 掃淸工作에 及한다。

【9】 白 盧史楚 · 黑 金秉浩 (四日半出)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子丑寅卯辰巳午未申

砒素驅黴劑의權威
네오아루사미노루
(ネオアルサミノール)

네오아루사미노루는 저 有名한「에-루리히·하다」606號의 發見을 直接繼承하야 製造發賣하것으로…… 日本에잇어서의 가장長久한 歷史와經驗에依하야 嚴正한科學的工程을 經由、品質効果에잇어서는 斯界의權威로서 多年間治療界에 好評과信任을밧고잇습니다。

三共 SANKYO
東京市日本橋區室町 三共株式會社
京城府大和町 朝鮮三共株式會社

京劇 本日ヨリ 廿四日ヨリ卅一日マデ上映番組ト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第四回 十一時 四時 七時 續阿波狸合戰 母の願ひ ニユース 『女人哀詩』近日封切 誰が見ても面白い! 靑春涙あり母は尊し 階下席 三十錢

大陸劇場 27日より上映時間表 私には夫がある 11•00 ニユース 12•24 3•34 7•00 紺育の顏役 12•39 3•49 7•15 私には夫がある 2•05 5•10 8•36 次週 テキサス決死隊 ペペルモコ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ニユース 11•00 2•40 6•30 大江戶百鬼 11•10 2•50 6•40 大進軍 12•20 4•00 7•50 ニユース 1•10 5•00 8•50 春ひらく 1•20 5•10 9•00

劇團高協 巡回日程 五月三十日 〃三十一日 哈爾賓 モデルン劇場 六月二日 〃三日 〃四日 牡丹江 東入會館 〃六日 〃七日 羅津 羅津劇場 沈英作 春香傳 五막六장 杜英作 燈臺直 三幕四場 宋影作 어머니 一幕

明治座 27日ヨリ30日マデ 水戶黃門 10•00 探偵合戰 12•14 3•45 7•20 水戶黃門 1•31 4•57 8•34

若草東寶 5月25日よりの上映時間表 ニユース 10•30 1•25 4•20 7•15 豪傑人形 10•40 1•35 4•30 7•25 大相撲 文化映畫 11•55 2•50 5•45 8•40 エノケンの譽れの土俵入 12•20 3•15 6•10 9•05

新富座 六月一日(土)より 侍(新興)血の歡喜 お江戶奴侍 若い仲間 三人の死刑囚 新興京都超特作 東寶映畫

第一劇場 五月廿九日ヨリ四日間 巨人ゴーレム 家庭日記 漁火(いさりび) ロツパの新婚旅行

桃花劇場 五月卅日公開 大衆料金 アリラン 第三篇 カルメン 洪吉童 續篇 京城撮影所

優美館 五月二十八日より キング・ソロモン 銃彈の洗禮 子育て仁義 神州女秘使

東洋劇場 五月二十二日晝부터 洪吉童傳 前後篇大會 次週豫告 大史劇『그前날밤』 李雲芳 脚色 電光(二)一五四番

和信映畫館 廿八日早朝六月三日迄 軍艦生活の朝 翼の日本 搖ぐ國境線 自動車サーカス